

체감형 인공지능 기술...지하철역서 만난다

조선대 LINC+ 사업단 운영, 금남로4가역 'AI 체험관' 눈길 도시철도공사, 스마트팜모델 조성·3차원 공간정보 구축 속도

인공지능(AI) 중심 도시인 광주시 도시철도 역사가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빈 공간에 AI·VR 체험관 등 인공지능을 접목한 'AI문화예술체험관'이 문을 열면서 시민과 인공지능 간 만남의 장으로 바뀌는 등 AI를 일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선대학교 LINC+ 사업단은 금남로4가역에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해 디지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AI문화예술체험관'을 개소했다.

이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커리큘터를 비롯한 ▲인터랙티브 아트 활동 ▲VR 미술체험 등 인공지능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 ▲광주정신제고를 위한 영상예술작품 상영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금남로4가역은 종장로와 금남로를 잇고, 지하상가와 인접해있는 등 장소적 특성으로 하루 평

균 3천400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주요 역이다.

이 역사는 그간 어른들이 장기를 두고, 공연 관람 등 만남의 장소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정기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AI 콘텐츠·부대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인공지능과 산업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지난 4월 농촌진흥청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금남로4가역에 1천89㎡ 규모의 'AI스마트팜'을 올해 12월까지 조성한다.

AI스마트팜은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공기, 온도, 양분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실제 농장 시스템을 말한다.

날씨가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갖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



한 시민이 금남로4가역에 위치한 'AI문화체험관'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 시민들이 실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해볼 수 있게끔 팜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화 사업도 눈길을 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사업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지하철역 설계도면 DB공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 1호선의 전 역사 안팎의 시설물을 3

60°VR 장비와 드론으로 촬영, 이를 역사도면과 연계한 3차원 공간 정보로 구축하고 있다.

역사 시설 내부 주요지점에 대해 수평 360°, 수직 180°의 전방위 공간 영상을 둘러볼 수 있는 '360° 파노라마 뷰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도시철도 역사 내부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옮긴 가상공간 시스템으로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경로 ▲각종 안전·편의시설 ▲역 주변 주요 시설물 위치 확인 등 복잡한 지하구조에서도 쉽게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역사 공간의 입체적 인식이 가능해져 재난 상황시 실내공간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 대응 활동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AI 중심도시 광주 구현에 발맞춰 양질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제공, 지하철역이 디지털 문화 혁신의 산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 대응, 공기질 스마트 관리,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 임직원 VR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교육 등 공사 내부에서의 디지털 역량 역시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온택트 문화 있는 날 남도 문화 사랑 빠지다

오늘부터 '옴뎀전남투브' 라이브 공연

전남도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7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시·군 공공 문화시설에서 '온택트 문화가 있는 날, 남도 문화 사랑 빠지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가 장기 중단돼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창작·전시활동 기회를 주고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 한국예총 전남지회가 함께 마련했다.

유명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가을맞이 공연을 펼치고 미술품 전시 작가들이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아직 대면 공연과 전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옴뎀전남투브'를 통해 '온택트'(온라인+비대면) 실시간 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문화시설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 현장감 있는 공연과 전시로 꾸며질 예정이다.

27일과 29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진도 윤림산방 야외무대에서 '수목 오채잔란-블루문' 공연을 하고, 10월 3일에는 목포 노적봉미술관에선 유달오페라단, 지역 활동 가수 등이 감성적인 음악으로 가을 향기 가득한 희망의 선율을 선물한다.

10월 26·28·31일에는 '문화로 블루투스'라는 주제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구례 한국암화박물관, 무안 오승우미술관에서 전통과 퓨전국악, 대중적인 댄스, 재즈,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11월 25일에는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조영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가을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전남에서 희망을 연주하는 전시·공연 등을 통해 많은 도민이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남도 문화'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최시장, 프린지페스티벌 참석

지난 25일 오후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차장에서 열린 9회차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분산형으로 진행된 GGM 프린지페스티벌은 드라이브인 공연으로 펼쳐졌다. <광주시 제공>

광주 유일 시립수목원 내년 5월 개장

지하철공사장 등서 4천500그루 반입...수춘천 정비공사 동시 추진

광주에서 유일한 시립수목원이 내년 5월 말 개장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시립수목원은 24만6천948㎡ 일원에 남도숲 등 3개 지구, 가을정원 등 9개 정원, 향기원 등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50%. 방문자센터와 수목관리동 건축물 기초작업은 끝났으며 도로와 우수시설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나무 심기에 들어가는데, 일부 나무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등 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대형목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나무를 효과적으로 옮겨 심어 가치 있는 녹색 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수목원 조성 기간 단축과 33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운교차로를 비롯한 9곳의 소나무 등 52종·4천483그루를 수목원에 옮겨심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까지 시는 3천507그루를 수목원 옆 양묘장에 임시로 옮겨 심은 데 이어, 일부 대형목은 컨테이너 화분 형태로 반입했다.

컨테이너 화분을 이용해 심은 나무는 수목원에 다시 심을 때 별도로 굴착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종행기자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종다양성 등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립수목원을 보다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 공사에 맞춰 추진한다. 수춘천 중 수목원 구간 0.7km는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석 돌쌓기 공법으로 시공한다.

시립수목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량 2곳을 추가 설치하고, 수목원 경관과 조화를 위해 재방 산책로의 통일감을 부여하며 수변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한 공조팝나무와 텃밭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광주국악상설공연으로 가을 풍류 즐겨보세요

내달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내달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다양하고 흥겨운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국악'을 주제로 각 단체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여 '전통 예술은 낡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마련된 상설 공연이다.

첫 공연인 1일에는 예술이 숨 쉬는 곳, '예락'의 가을맞이 국악콘서트 '풍악을 울려라!' 공연이 열린다.

'예락'은 우리의 것은 그대로 지키되 현대적인 실내악과 사물놀이의 흥이 넘치는 사물놀이의 향연 '신모듬' 무대를 시작으로 국악가요를 연이어 무대에 올린다.

2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신명나는 명품 국

악공연을 준비한다. 한량무, 가야금병창, 단막창극 '십장가', 판굿 등 전통의 맥을 잇는 우리의 고유한 정서와 신명을 담아낸 전통 예술의 맛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16일 '가을의 향기', 22일 '깊어가는 가을의 숨결',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등 풍류로운 국악선율로 가을의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는 국악관현악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0월 한 달 간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가을밤 국악의 풍류와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흥겨운 공연을 준비해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휴관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장 최소화(무료)로 진행된다. /이종행기자

"탈 탄소는 시대적 사명"...기후위기 대응 촉구

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 '9·24 기후정의 공동선언'

정의당 광주시당과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미래당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9·24 기후정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4당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한다면 더 큰 재앙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제 탈 탄소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종 토건사업,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며 탈 탄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말만 앞세우는 탄소중립 정부와 보수 기득권 양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맞아 전세계 기후시민과 함께 행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재의 탄소중립적이고 자본친화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후약당 행위를 일삼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다.

4당은 ▲광주시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50% 달성 ▲정의로운 전환 실현 ▲석탄화력발전소 및 신공항 건설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글로벌 기후파업'은 지난 2019년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참가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 25일 전국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9·25 집중 기후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종행기자